

보도시점 2024. 3. 28.(목) 10:00 배포 2024. 3. 27.(수) 18:00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4편]

## ‘창원·통영, 꽃으로 음악으로 피는 봄’ 로컬100 현장 가다

- 유인촌 장관, 네 번째 ‘로컬로 캠페인’으로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 방문
- 산업부·국토부와 함께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문화가 있는 산단’ 조성방안 모색
- 창원 늘봄학교, 통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현장 찾아 의견 청취하고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인, 내외신 기자단 등과 함께 3월 28일(목)과 29일(금),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네 번째 편 ‘창원·통영, 꽃으로 음악으로 피는 봄’ 현장을 찾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올해 1월 ‘강릉’, 2월 ‘수원’ 등 매월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3월에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 시장 홍남표)와 통영시(시장 천영기)의 봄철 대표 축제이자 ‘로컬100’인 진해군항제(창원)와 통영국제음악제 현장을 방문한다.

### 3. 28. ‘진해군항제’ 주요 행사지 방문, 외국인 관광객 의견도 청취

창원의 ‘로컬100’인 진해군항제는 군항(軍港)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祭)를 결합한 행사로서,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장식하는 벚꽃으로 더욱 유명한 지역 대표 축제다. 이번 제62회 진해군항제는 ‘봄의 왈츠, 우리 벚꽃사랑 할래요?’를 표어로 공식 행사존(진해운동장), 참여·축제존(북원·중원 로터리), 힐링·워킹존(여좌천·경화역), 바다감성존(진해루), 군항도시존(해사·진기사) 등 총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여좌천·경화역의 벚꽃거리와 승전행차(3. 29.), 군악의장 페스티벌(3. 29.~31.) 등은 진해군항제의 주요 볼거리다.

유인촌 장관은 홍남표 시장, 외신기자단과 함께 경화역(2006년 폐역) 미니역사를 방문하고 여좌천 등을 직접 걸으며 축제 현장을 두루 둘러본다.

진해군항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 한국 여행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 3. 29.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공연 관람, 학교 클래식 교육 현장 방문

통영의 '로컬100'인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클래식 음악제로서,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열린다. 올해는 3월 29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 '순간 속의 영원(Eternity in Moments)'을 주제로 페테르 외트비시의 '시크릿 키스' 한국 초연, '오로라' 아시아 초연 등 세계의 여러 초연 작품들을 소개한다.

유인촌 장관은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베를리오즈 '이탈리아의 해럴드'(앙투안타메스티 협연)와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드' 등 개막 공연을 관람하고 축제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통영 동원중학교의 클래식 교육 현장도 찾아간다. 학생들의 색소폰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을 격려한다. 이어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프린지 공연'도 관람할 계획이다.

\* (통영 프린지 공연) 장르 불문 프로·아마추어 음악가 40팀이 참여하는 축제

###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현장 방문해 의견수렴

한편, 유인촌 장관은 3월 28일(목) 오전,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된 문화복합시설에서 청년기업인과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인을 만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등이 함께했다.

창원복합문화센터와 콘텐츠코리아랩 등은 정부가 1980년대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리모델링)해, 현재는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 창원 ‘늘봄학교’와 통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현장도 찾아 의견수렴

유인촌 장관은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도 찾아간다. 창원시 합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직원 등 관계자를 격려한다. 문체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맞춰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체육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200여 개 초등학교, 358개 학급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50개 학급에 핸드볼, 뉴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단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통영시는 조선이 인정한 명품브랜드 ‘통제영 12공방’의 역사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등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려 문체부로부터 ‘공예클러스터, 음악벨트, 예술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다. 유 장관은 국토부·엘에이치(LH)와 함께 부처 협업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신아 조선소 부지 등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 매월 ‘로컬100’ 현장 찾아, 지역 넘어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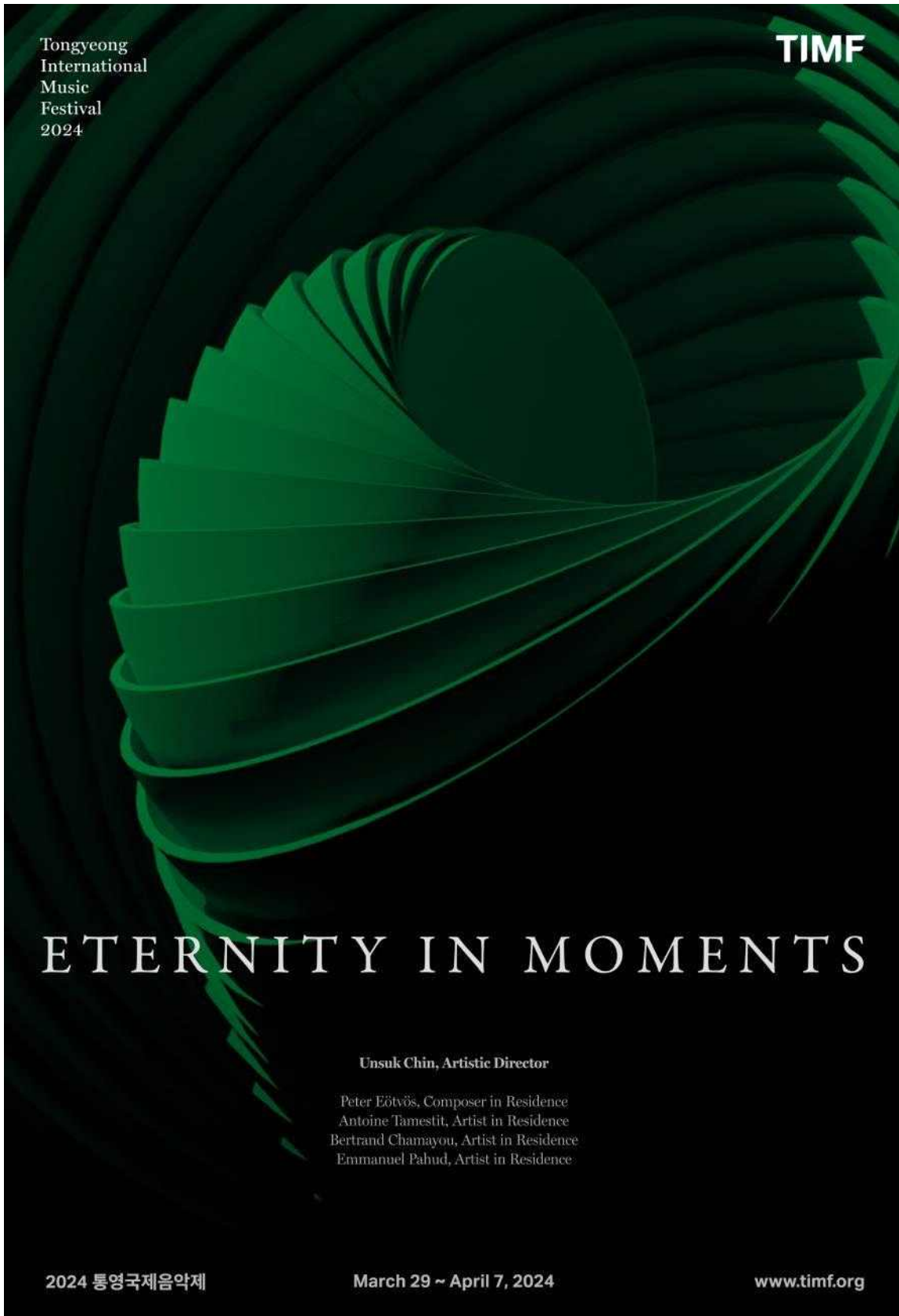
유인촌 장관은 “‘창원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는 매년 이맘때 열리는 봄철 대표 축제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에 좋다.”라며,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지역이 지닌 매력을 국내외로 알려 우리 지역관광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진해군항제’ 홍보자료  
 2. ‘통영국제음악제’ 포스터  
 3. 통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개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관실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허권 (044-203-2607)
(협조)	문화예술정책관실 문화예술교육과	책임자	과장	김경환 (044-203-2761)
		담당자	사무관	강정은 (044-203-2768)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24

TIMF

# ETERNITY IN MOMENTS

Unsub Chin, Artistic Director

Peter Eötvös, Composer in Residence  
Antoine Tamestit, Artist in Residence  
Bertrand Chamayou, Artist in Residence  
Emmanuel Pahud, Artist in Residence

2024 통영국제음악제

March 29 ~ April 7, 2024

[www.timf.org](http://www.timf.org)

< 사업체계 >

비전

긍정과 변화의 성장문화도시 통영

미션

과거의 유산에서 - 미래를 준비하는 - 현재의 동력으로  
 “문화로 도시 변화를 긍정하는 12가지 도전 : 통영 12 프로젝트”

목표

도시문화역량 강화

문화도시를 위한  
도시역량 강화

긍정과 잠재력,  
시민의 역량과 의지가  
모아지는 통영

학습과 성장

예술교육을 통한  
인력의 성장

사람을 성장시키는  
예술교육의 도시  
통영

예술창작 거점

도시환경을 활용한  
창작활동 활성화

쉽고 영감을 얻고  
교류와 협업을  
도모하는 창작캠프  
통영

문화산업 육성

도시맥락과 연계한  
문화산업 육성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의  
접점도시 통영

전략

도시 긍정과  
시민 잠재력 발현

문화예술 인프라와  
지역자원/인력 연계

문화예술 인프라와  
지역환경 활용/연계

도시개발계획과  
문화적 도시맥락 연계

과제

01 문화경영체계  
통영 문화도시센터

04 교육 전문매개 활동  
예술교육 중개소

07 사회적 예술 공론장  
지속가능예술 캠프

10 통영특화 여행산업  
예술여행

02 통영 도시브랜딩  
통영!  
도시, 그 자체가 예술

05 문화 생활권 구축  
늘함께 문화

08 창의음악도시 특화  
통영 음악벨트

11 통영예술마켓  
열두가지 문화상점

03 통영문화네트워크  
달과뚝

06 통영형 학습 시스템  
통영 12 캠퍼스

09 창작 거점화 사업  
창작캠프 통영

12 앵커사업  
공예디자인메이커스  
클러스터

## < 미래상 >

